

在日 韓人의 通過儀禮 研究*

한 태 문**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에 반영된 전통의 |
| II. 조사지역의 개관과 선정 이유 | 지속과 변이 |
| III.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 실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在日 韓人¹⁾은 日帝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통치가 남긴 우리 민족의 쓰라린 유산이다. 이들은 여타의 재외 한인과는 달리 일본의 폐쇄적인 외국인 정책과 맞물려 차별과 편견으로 생존권을 위협 당하면서도 일본에서 출생한 2세조 차도 모국의 국적을 고수하는 아주 특이한 삶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에서 나고 자란 3세·4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일 한인들은 일본 사회에서의 적응 방식은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5-A00007)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在日 韓人'은 한국 국적과 북한 국적,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韓민족으로서의 운명공동체이자 문화공동체집단을 통칭한다.

재일 한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착과정의 규명·거주현황·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등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²⁾ 그 결과 정착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 그리고 집단의 의식을 반영하는 생활문화로서의 통과례에 대한 연구는 그리 철저하게 천착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광규의 연구는 단연 돋보이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광규는 재일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大阪市 生野區를 중심으로 생활 실태를 살핀 결과, 통과례가 세시의례에 비해 보다 일본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 또 이문웅은 재일 한인의 혼인에 대해 1992년 현재 82.5%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피로연이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일본인과는 달리 신혼여행 후 반드시 신부의 부모를 먼저 찾아 인사하는 것을 중시한다⁴⁾고 보고하고 있다.

이광규와 이문웅의 연구가 주로 개괄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면, 김양기와 김명수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김양기는 1991년 6월에 실시한 <재일 한국인사회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앙케트>결과를 분석한 뒤 예의범절을 우리의 전통이라 여기고, 제사를 소중히 하는 의식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⁵⁾ 그리고 김명수는 1993년 6월에 실시한 앙케트를 분석한 결과 가정행사 중 백일잔치·돌잔치·환갑잔치·민족식

2)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①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 동포』, 서울대출판부, 1999, ②강재언·김동훈 저, 하우봉·홍성덕 역,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③법무부,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 법무자료 제62집, 법무부, 1985, ④이구홍, 『오늘의 재일 한국인 사회』, 인문출판사, 1974, ⑤재일대한기독교회 지문거부실행위원회, 『재일한국인 지문거부운동』, 정암사, 1987, ⑥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 출판부, 1996, ⑦姜撤,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 雄山閣, 1987, ⑧吉岡増雄, 『在日朝鮮人と住民権運動』, 社會評論社, 1981 등이 있다.

3) 이광규, 『在日 韓國人-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일조각, 1983, 180쪽.

4)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일본』, 통일원, 1996, 141-145쪽.

5) 김양기, 『일본 한국인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제1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 조사는 靜岡縣 210명(한인 205명과 일본국적 日系한인 5명)과 埼玉縣 30명(川越市와 그 부근 거주 한인)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39문항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①한복 착용 경험, ②분명 사용의 실태, ③한국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대표적 전통, ④제사 수행 여부, ⑤한국어 활용 여부, ⑥전통의 전승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장례 등을 절반 가량 계승하고 있고, 민족적인 풍습과 민족적인 방식을 지켜나 가야 한다는 응답이 65.8%나 나온 것을 토대로 재일 한국인 청년들의 민족의식이 투철하다고 결론짓고 있다.⁶⁾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은 이제까지 소략했던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고유의 통과의례 내용 전반을 문항으로 다루지 않았고,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에 엄격하게 말하면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성과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大阪・奈良・萩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설문내용도 필자가 부산시 機張郡의 통과의례 조사시 사 용한 설문조항⁷⁾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재일 한인들이 韓民族 고유의 통과의례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일본사회내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적응해 나아가는지 현장조사⁸⁾를 통하여 그 전통의 지속과 변이의 실상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
- 6) 김명수, 『1993년 재일 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재일한국청년회, 1993. 이 연구는 일본태생의 한국 국적을 가진 18-30세인 자 8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7) 김승찬 외,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충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102-183쪽 참조
- 8) 이 연구는 3차례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조사(2002. 1/9-1/17)는 주로 奈良・大阪市 生野區를, 그리고 2차(2003. 1/20-1/24)는 大阪市 生野區를, 또 3차(2003. 1/25-1/30)는 山口縣 萩市를 중심으로 1:1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조사의 대상은 奈良의 경우 奈良거류민단장 李道永(中村道永, 67세)의 협조로 朴○○(井木○○, 80세, 사업가)를 비롯한 10명을, 大阪은 高正臣(49세, 税理士)의 주선으로 朴○○(新井○○, 68세, 신발제조업)을 비롯한 16명 등 총 26명(재일 한인 1세 : 7명, 2세 : 19명)이었다. 2차 조사는 大阪에 거주하는 재일 한인 133명(1세 : 16명, 2세 : 68명, 3세 : 37명, 4세 : 1명, 기타 : 4명)을 대상으로 조사원(大阪시립대학 유학생 權玪珠・安壽山・蘇珍伊・정명호, 神戸대학 유학생 박정 이)을 통한 설문조사형태로 이루어졌는데, 在日민단 국제부부장의 지원이 컸다. 그리고 3차 조사는 民團 山口縣 지방본부 감찰위원장인 裴琺石(74세, 요식업)의 협조로 15명(1세 : 6명, 2세 : 8명, 3세 :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면을 빌어 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참고로 본문 속의 제보자 성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姓을 제외한 이름을 '○○'으로 처리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조사지역의 개관과 선정 이유

본 연구가 大阪市 生野區와 奈良縣의 奈良市, 그리고 山口縣 萩市를 표본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과의 친연성 및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재일 한인의 밀집 여부, 그리고 출신지역적 연대감 때문이다.

첫째 한국과의 친연성이다.

大阪는 東京과 함께 일본의 2대 중심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일본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일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모여 사는 生野區를 끼고 있다. 生野區는 1910년 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일본어와 농업교육을 받기 위해 大阪汎愛扶殖會社의 초청으로 猪飼野(지금의 生野區)에 첫발을 내 디딘 후, 평야천의 개수공사 이후 더욱 많은 재일 한인이 모여들어 형성된⁹⁾ 이른바 ‘在日韓人村’이다. 최근에 ‘하나가 되어 기르자 민족의 문화를, 마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의 이념적 갈등을 벗어 던져 버리고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며 살아가려는 ‘生野민족문화제’¹⁰⁾가 개최되기도 해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곳보다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奈良은 710년 平城京이라는 도읍이 조성되어 74년 동안 불교문화가 융성한 國都로, 오늘날에는 大阪 도시권 안의 주택위성도시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法隆寺의 金堂벽화가 말해 주듯 우리 문화가 소위 일본의 ‘大和문화’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奈良市-경북 경주시’, ‘奈良縣 明日村-충남 부여시’가 각각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융성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山口縣의 서북부에 위치한 萩市는 옛날 秀吉의 시대에 五大老

9) 이광규, 앞의 책, 128쪽 참조.

10) 1983년 10월 15일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제1회 生野민족문화제 문집』에는 ‘누구나가 생활의 장에서 가볍게 민족문화를 즐기으로써 민족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민족적 자각을 갖고 살아가려는 청년들의 에너지가 집결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춘길, 『재일동포의 문화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1997, 112-119쪽 참조.

중의 1인이었던 毛利輝元 이래 13대 260년간 번영을 누렸던 城市였을 뿐 아니라, 吉田松陰(1830-1859)의 松下村塾을 근거지로 明治維新의 주역들이 배출된 역사적인 고장이다. 게다가 일찍이 백제 臨政대자(25대 聖王의 3男)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大內氏가 오랫동안 지배하였고, 전국적 명성을 얻은 萩燒가 다름 아닌 임란 때 끌려간 조선 陶工 李勾光·李敬 형제에 의해 비롯되는 등 우리나라와 친연성을 많이 띠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주거에 있어서 재일 한인의 밀집 여부와 출신지역적 연대감이다.

大阪의 生野區는 재일 한인의 30%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의 99.52%가 재일 한인으로 구성되어 '일본 속의 한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재일 한인의 밀집지역이다.¹¹⁾ 이에 비해 奈良과 萩는 인원수나 주거의 밀집 정도에 있어서는 大阪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大阪은 일본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고유의 생활문화를 지속해 왔을 가능성을, 그리고 奈良과 萩는 고유의 생활문화를 계승하긴 어렵지만 일본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재일 한인의 삶과 문화적 변용이 훨씬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출신지역에 있어 大阪의 生野區는 제주도, 奈良은 경상도, 그리고 萩는 전라도 사람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삶의 양태에 기반한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 실상

프랑스 민속학자 반 겐넵(Van Gennep)이 명명한 통과의례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디가 되는 출생·성년·혼인·회갑·죽음 등에서 거행하는 의례로¹²⁾, 인간의 사회적 지위·역할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우리의 경우 흔히 四禮(冠婚喪祭)를 통과의례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사람의 일생을 확대 해석하여 祈子俗부터 제례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일생의례'·'평생

11) 이춘길, 앞의 논문, vii쪽.

12) 박계홍, 『韓國民俗學概論』, 형설출판사, 1992, p.118.

의례'라 불리기도 한다.¹³⁾ 필자는 제례는 가족과 문중에서 행하는 조상숭배로 종교의례의 성격이 강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통과의례의 범위는 크게 産育禮・成年禮・婚禮・喪禮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1) 산육례

산육례는 出産儀禮와 生育儀禮를 합친 것으로 祈子로부터 잉태와 출산을 거쳐 아기가 태어난 후 만 1년이 되는 돌 및 幼少年期の 사이사이 중요한 계기에 행해지는 의례이다. 일반적으로 解産을 경계로 '産前儀禮'(祈子・胎夢・임신 중 禁忌・胎兒의 性別 예측・安産기원), '解産儀禮'(출산 당일의 금기・産室의 준비・流産과 難産의 방지 및 처치・胎의 처리・産神의 坐定과 致誠), '産後儀禮'(금줄치기・授乳와 抱衣・목욕・産後 금기・作名과 賣子・百日・돌・돌 이후의 행사)로 나누어진다.

(1) 산전의례

① 祈子

기자는 넓은 의미에서 '자식'을 얻기 위한 의례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자녀의 출산은 家業의 계승과 조상숭배, 그리고 집안의 번창과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실제 재일 한인들도 자신의 일생 중 가장 기뻐던 일로 결혼(12.8%)・조국해방(12%)보다도 자녀출산(30.8%)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 재일 한인들에게는 기자속이 그리 보편적으로 행해지지는 않고 있었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大阪에서는 神社나 절에서 神佛에게, 萩에서는 특히 삼신할매에게 祈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의 주제는 주로 당사자-시아미-남편의 순서이며, 大阪에서는

13) 김용덕은 祈子儀禮로부터 죽은 후 제례까지 일생동안 거치는 모든 의례라는 의미로 '일생의례'라는 용어로(『一生儀禮』,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169쪽), 張哲秀는 통과의례는 모든 종류의 의례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의 한 평생에 관한 의례를 생활공간 중심의 '領域儀禮'와 시간변화 중심의 '歲時儀禮'와 구별하여 '平生儀禮'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인간을 위한 의례의 의미』, 최인학 외, 『기층문화론을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 중, 민속원, 1998, 26쪽).

14) 한태문, 『한국과 일본의 통과의례 비교 연구-釜山廣域市 機張郡과 山口縣 萩市の 産育禮를 중심으로』, 『語文研究』38집, 어문연구학회, 2002, 286쪽.

임신한 여자의 腹帶를 당사자의 배개 밑에 깔아두면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한다.

② 胎夢

태몽은 기자의례를 거친 여자가 임신할 전후를 기점으로 꾸는 꿈으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태몽이 단순히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별·성격·미래 등에 어떤 계시를 준다¹⁵⁾고 믿었다. 재일 한인들의 경우 태몽을 아이의 성격과 미래에 결부시키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성별과 관련짓는 풍습은 있었다. 곧 大阪에서는 ‘붉은 고추·푸른 고추·큰뽕·말·고기·담뱃대’등을 아들 꿈으로, 그리고 ‘과일·하얀 뽕·해녀들의 허벅’을 딸꿈으로 해석하는 등 제주도의 태몽속¹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奈良과 萩에서는 태몽이 거의 없으며 다만 萩에서 ‘흰 코끼리’를 딸꿈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③ 태아의 성별 예측

家父長制가 男兒選好사상을 부추긴 결과 다양한 성별예측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태몽보다 더 강화된 것이 胎兒에게 행해지는 성별예측법이었다. 그래서 그 방법도 ㉠부부의 나이를 합친 숫자를 통해 예측하는 計測法, ㉡태아의 움직임 중심을 예측하는 胎動感知法,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음식물로 아는 방법, 그리고 ㉣먼저 낳은 자식의 성격·태도·행위로 아는 방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大阪에서는 ㉢과 ㉣이 주로 발견된다. 곧 ‘배 왼쪽에서 높고’·‘고기를 좋아하며’·‘배가 튀어나오고’·‘궁둥이가 넓으며’·‘임부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아들, ‘야채를 좋아하고’·‘얼굴이 편안하며’·‘기미와 주근깨가 많으면’ 딸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밖에 특이한 경우로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복대를 맬 때 걸으로 매었느냐 안으로 매었느냐에 따라 성별을 예측하기도 한다(高〇〇, 31세, 음악활동). 반면 奈良과 萩에서는 태아의 성별예측

15) 한태문, 「통과의례에 반영된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60쪽.

16) 제주도의 경우 ‘호랑이·황소·돼지·뽕·개·수평·수탉·달걀·붉은 식물·무·가지·마늘·담뱃대’를 포함한 남성용품의 태몽을 아들꿈으로, ‘화초·연약한 동물·덜 익은 과일·여성용품’의 태몽을 딸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濟州의 民俗 I - 세시풍속·통과의례·전승언어』, 제주도, 1993, 241-243쪽 참조.

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 임신 중 금기 및 安産기원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妊婦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마음·가정·음식 등을 조심하게 되고, 임부와 관계 있는 주변인물들 역시 임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함께 근신하게 되는데, 이를 ‘임신 중의 금기’라 한다. 주로 음식금기와 행위금기로 나누어지는데, ‘가오리와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피부가 거칠어진다’·‘오리고기를 먹으면 손발이 붙는다’·‘담배를 피우면 둔한 아이를 낳는다’ 등 음식금기가 있지만, 그보다 ‘초상집과 제사집에 가면 아기가 물에 빠지고 불에 타죽거나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된다’·‘아궁이에 칼을 얹어 두면 언청이가 생긴다’·‘다다미선을 밟으면 아기가 큰 인물이 못된다’·‘불난 집을 보면 시퍼런 점이 있는 아기를 낳는다’ 등과 같은 행위금기가 대부분이다.

安産을 기원하는 풍속은 ‘産祝(ウブイワイ)’ 또는 ‘帶祝(オビイワイ)’이라 불리는¹⁷⁾ 일본 특유의 腹帶축하의식¹⁸⁾과 결부되어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곧 임신 5개월이 되는 戌日(개의 날)에 大阪과 奈良의 경우는 神社나 절에서, 그리고 萩는 병원에서 지금 받은 腹帶를 배에 두르는데, 그 기간은 출산 때까지이며 출산 이후에는 기저귀로 사용하거나 절에 돌려주어 절에서 태워 없앤다.

(2) 해산의례

① 胎의 처리

胎는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삼과 탯줄의 조직으로 胎生의 인간에게 있어 생명의 기원이자 생명을 키워내는 집¹⁹⁾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탯줄은 신생아의

17) 편무영, 「일본인의 인생의례」, 『일본민속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7, 151쪽.

18) 腹帶축하의식은 태아의 胎動이 감지되는 임신 5개월째 ‘개의 날(戌日)’을 택해 木綿 등으로 띠를 만들어 임신부의 배에 감는 의식으로 개가 새끼를 많이 낳고 출산이 가볍다는 생각에서 이를 類感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倉石あつ子 외, 『人生儀禮事典』, 小學館, 2000, 16쪽 참조.

19) 김재일, 『우리 민족 아흔아홉마당』, 한림미디어, 1997, 20쪽. 태를 아홉 달 동안 아기에게 양분을 공급해 준 아기의 분신으로 여겨, 잘 처리하면 아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인 사고였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카트린 롤레, 마리 프랑스

건강과 운명에 직결된다고 여겨 우리 민족은 그 처리를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상자에 넣어 보관했다가 본인의 결혼 때 진네준다'(李○○, 奈良, 63세, 주부)는 것 외에 재일 한인에겐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② 産神의 坐定과 致誠

출산을 전후로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지켜주는 産神을 産室에 좌정시키고 이에 대해 치성을 드리게 된다. 이는 태아의 無病成長을 회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産神은 출산과 生育 및 산모의 건강을 담당하는 神인 까닭에 출산의례에서 가장 신성시된다.

하지만 재일 한인의 경우 이 역시 그리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는 않으며 大阪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産神은 '삼신할망'으로 불리는 여신으로, 낳아주는 할망과 열을 내려주는 할망이 있으며 産室의 구석에 쌀·과일·미역국을 올려놓은 밥상을 차려 놓고 시어미가 빌거나(高○○, 54세, 요식업) 돈과 쌀을 올려놓은 밥상을 차려 놓고 아이가 15세가 되는 날 불공을 드린 후 상을 치운다.

(3) 산후의례

① 授乳·胞衣·목욕

산모의 젖은 嬰兒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었기에 수유시기와 양의 많고 적음은 산모에게 큰 관심사였다. 그리고 胞衣는 신생아가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인데, 이들은 衣食住의 최초 실현의식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 아기의 첫 목욕은 胎內세계와의 결별 및 새로운 세계로의 入社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재일 한인의 경우 본격적인 수유와 목욕은 대체로 사흘 후에 행하지만 첫 젖은 아이에게 먹이는 쪽과 깨끗한 젖을 먹이기 위해 버리는 쪽으로 양분된다. 대신 젖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게 '생선·미역국·돼지족발 곱·소바국·계란 노른자·우유죽·소고기국·도미국' 등을 먹는다. 그리고 신생아가 입는 첫 옷과 이불은 대체로 친정에서 선물하며 최근에는 아기의 침대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

모텔 저·나은주 역, 『출산과 육아의 풍속사』, 사람과 사람, 2002, 76쪽 참조.

② 산후 금기

산후 금기는 정상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嬰兒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행해진다. 재일 한인의 경우 음식금기로는 '산모를 위해 과일이나 차고 매운 음식을 먹지 않기'가, 행위금기로 '힘한 말 삼가기·머리를 감거나 빗질 않기' 등이 있다. 특히 '머리를 쓰다듬을 때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야지 역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도 있다.

③ 백일과 돌

백일은 아기가 출생한 후 100일 째 되는 날의 행사이고, 돌은 아기가 출생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생일로 모두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는 의미를 지닌다.²⁰⁾ 재일 한인들의 경우 백일은 가족끼리 밥상만 차리고 아들은 나체로, 딸은 옷을 입혀 기념사진만 찍을 뿐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은 이날 양가 식구가 모여 요릿집에서 주문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기도 한다(高○○, 31세). 특히 이날 아이의 두발을 짹아 버리는 집도 있었는데 이는 백일 이전의 머리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고, 백일 뒤부터는 자신의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李○○, 63세).

돌은 재일 한인에게 있어서 산육례 중 가장 중요한 통과례이다. 우선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돌복을 입히고 팔밥을 하여 나눠 먹는데, 이날 돌상에는 실·가위·연필·주산·붓·돈·쌀·책·떡 등을 올려놓고 아이가 집는 물건을 가지고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풍속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²¹⁾ 곧 돈은 부자, 공책은 공부, 볼펜은 장사, 실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돌 이후의 행사

우리의 산육속이 대개 돌에서 마무리됨에 비해 일본의 산육속은 '初節供(첫 맞이 명절)'행사를 비롯하여 '七五三(しちごさん)'의식에까지 이어진다. 전자는

20) 사계절의 기온 변화가 현저한 우리의 경우 아기의 질병과 죽음은 환절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節氣가 3개월을 단위로 전환됨을 고려할 때 百日은 절기에 따른 외계의 변화를 아무 탈 없이 잘 넘겼음을 축하하는 것이고, 돌은 사계절의 순환을 완전히 겪어냈음을 축하하는 의례가 된다.

21) 이번 조사에서는 '돌상에 올려놓은 물건을 집는 것으로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풍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려 72.9%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생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대한 기념행사로 일본 5대 명절에 속하는 端午(5월 5일)과 上巳(3월 3일)에 각각 남아와 여아에 대해 행한다. 남아의 경우 이웃·친척 등으로부터 긴 천으로 만든 잉어연(鯉鰻り, こひのぼり)과 武士인형을, 여아는 인형을 선물 받는다. 그리고 후자는 매년 11월 15일, 氏神에게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행사를 베푸는 것으로 3세대에는 이전까지 입고 있던 끈 달린 옷 대신 띠를 두르는 머리를 정돈하는 의식[髪置き]이 행해지고, 5세대에는 남아가 처음으로 바지처럼 생긴 'はかま'를 입으며[袴着], 7세가 되면 처음으로 여아에게 허리에 두르는 폭넓은 띠를 묶어 주는 의식[帶解き]이 베풀어진다.

재일 한인의 경우 '初節供'행사는 주로 1, 2세 재일 한인들이 손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을 뿐이었고, '七五三(しちごさん)'의식은 30.1%가 행하고 있었다.

2) 성년례

성년례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남녀가 어른으로 진입하는 사회적 의미를 띠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낳고 육성하며 조상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이다. 우리의 경우 유교의 도입과 더불어 冠禮와 笄禮가 시행되어 조선시대 중류 이상의 신분에서 보편화되었지만, 조선 말기의 早婚 풍습과 개화기의 斷髮令(1898)을 계기로 자취를 감춘 풍속이기도 하다.²²⁾ 최근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부활하고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매년 1월 2번째 월요일²³⁾을 성인의 날인 동시에 국가공휴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성인식을 치르는 일본²⁴⁾과

22) 한태문, 「<海行摺載>소재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학회, 2000, 424쪽.

23) 1948년이래 매년 1월 15일이 성인의 날이었으나 휴일과 겹치는 등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1월 2번째 월요일로 바뀌었다.

24)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일본의 귀족들 사이에선 성인식을 마치고 처음 갓을 쓰는 것을 '初冠', 남자가 생후 처음으로 상투를 트는 것을 '初元結い'라고 불렀다. 중세에 이르러선 귀족이나 무사가 쓰던 모자의 일종인 烏帽子를 머리에 씌우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그리하여 성년식을 '烏帽子 쓰는 축하식'이라 하였는데, 중세말기부터는 烏帽子를 쓰지 않고 이마 위의 앞머리를 면도질하여 없애 버리는 것만의 모습인 소위 鬘頂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황성규·한태호 편, 『일본·일본인론』, 교학연구사, 1984, 52-53쪽을 참조.

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재일 한인의 경우, 젊은 세대의 약80%가 성인식을 치렀으며, 참여한 장소는 지역자치단체(40%)·민단(35%)·조총련(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침 조사기간 중 2002년 1월 13일(토요일), 奈良市 芝辻 1-87-3에 소재한 奈良縣韓國人會館에서 한국민단·부인회·상공회의소·청년회가 공동 개최하는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신년회도 겸한 이날 성인식은 민단의 5대 강령이 세로로 드리워진 식당에서 신년회보다 앞서 개최되었다. 대상자는 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남자는 양복 정장, 여자는 한복저고리를 착용했다. 식순은 다음과 같다.

- ①개회사, ②국민의례, ③지방단장 인사, ④중앙단장 축사, ⑤내빈 축사,
⑥축하장과 기념품 증정, ⑦성인대표의 답사, ⑧기념촬영, ⑨폐회사

이날 행사에는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환영해 주었는데, 주인공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성인식에도 참여할 것이라 하여 민단과 자치단체의 성인식에 二重 참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식이 있는 날 가정에서 별다른 행사를 치른 것은 없다. 다만 高〇〇(高橋〇〇, 54세)의 경우 이날 집에서 赤飯·도미·소고기 미역국·콩나물과 당근을 비롯한 나물 5-7가지를 특별식으로 먹었다고 하는데,²⁵⁾ 이는 우리 풍속과는 무관한 일본 고유의 전통 成年俗²⁶⁾에 기반한 것이다.

3) 혼례

- 25) 平安시대에는 성인의 날에 “쌀·밤·팥” 등 7가지 곡류로 만든 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養老律令의 시행세칙을 집대성한 고대법전 《엔기시키(延會式)》에 남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金文學·金明學 편저, 『일본문화의 수수께끼』, 우석, 1998, 41쪽 참조.
- 26) 일본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혼도시의 착용·聖地 참배·담력시험·들돌놀이, 여자의 경우에는 첫 월경이 시작될 때 이를 축하하는 팔밥을 지어먹고, 긴 천의 속옷인 腰巻을 허리에 두르며, 또 일곱 종류의 곡식으로 죽을 쑤어 먹고, 그 죽을 쓸 때 사용한 막대기로 짧은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때려 懷妊을 기원하는 ‘嫁叩き’와 같은 다양한 成年俗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편무영, 앞의 논문, 151-164쪽과 김문학·김명학 편저, 앞의 책, 41쪽을 참조.

혼례는 개인의 통과례인 동시에 신랑 신부 당사자의 결합을 성취하는 결합례의 성격을 띠는 까닭에 다른 의례보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일 한인에게 있어 결혼은 학력·집안·연령·용모 외에도 출신지·국적(한국, 조선, 일본) 등을 고려해야 하는²⁷⁾ 등 그리 용이하지 않기에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통 혼례는 중매인이 총각·처녀 양가를 드나들면서 혼담을 진행시켜 혼인을 결정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비롯하여 혼인 결정이후 양가의 문서교환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인 ‘議婚’과, 의혼의 과정을 거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행하는 ‘大禮’,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가 신랑집으로 와서 행하는 ‘後禮’로 나누어진다.

(1) 의혼

① 결혼 의중 탐색

재일 한인의 경우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연애결혼이 많은 편이다. 중매일 경우 ‘なこうど(仲人)’이라 불리는 ‘중매쟁이’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사촌 여동생·어머니 친구’ 등 친척을 비롯한 知人들이 중매쟁이 역할을 수행한다.

②四星과 宮合

양가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의사를 교환한 뒤 맞선을 보아 혼인을 결심하였을 때 신부측에 보내지는 신랑측의 四柱를 ‘사성’이라 하고, 신랑측의 사성이 신부측의 사주와 맞추어 백년해로 할 수 있을 지를 점쟁이 등에게 묻는 것을 ‘궁합’이라 한다. 재일 한인의 경우 대부분 사성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궁합은 53.8%가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궁합을 볼 때 신부의 띠로 ‘개띠’는

27) 이광규(앞의 책, 179-190쪽)와 이춘길(앞의 논문, 5쪽)의 연구에 의하면 재일 한인 1·2세의 경우는 內婚이 많으나 국적보다 본국에서의 출신지가 중시되고, 귀화인들은 귀화하지 않은 이들과 결혼하기 힘들고 특히 일본인과 결혼하기는 더욱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재일 3세의 경우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귀화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의 모호한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조사에서도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쪽(70.7%)이 반대하는 쪽(24.1%)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되 '말띠'·'호랑이띠'·'원숭이띠'를 꺼리고, 신랑의 경우 三災에 든 이를 꺼린다.²⁸⁾

③ 擇日과 納幣

사성을 받은 신부집에서 궁합을 맞추어 본 뒤 혼례날짜를 잡는 것을 '택일'이라 하고, 이를 신랑집에 알리는 것을 '渭吉'이라 한다.²⁹⁾ 하지만 재일 한인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합의하여 'たいあん(大安)'이라 불리는吉日을 택하는 경우가 62.6%, 신랑측에서 잡는 경우가 27.1%로 신부측의 0.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꼭吉日을 따지지 않고 더 이상 나쁠 것도 없다는 뜻으로 가장 안 좋은 날을 가려잡는 경우도 있다.

혼례날짜가 정해지면 혼인에 대한 증빙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용 혼수와 禮狀을 넣은 함을 신부집에 보내는데 이 의식을 '納采' 또는 '納幣'라고 부르고 그 함을 '봉채함'이라 부른다. 재일 한인의 경우 이를 '유이노[結納]'³⁰⁾라 부르는데, 내용물은 대체로 신부와 관계된 품목으로 '옷(양장, 한복)·패물(반지, 시계, 목걸이)·신발·돈(結納金)·핸드백' 등이며, 경우에 따라 부정제거를 위해 솟과

28) 奈良에 거주하는 李○○(岩本○○, 63세)은 궁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쥐띠는 성격이 차갑고, 호랑이띠는 고집이 세다. 양띠는 神(일본어로 '紙'와 발음이 동일한 것에서 유래)을 잡아먹고, 말띠 여자와는 결혼해선 안되며 원숭이띠 머느리를 맞으면 아들이 먼저 죽는다. 실제로 원숭이띠 여자는 과부 또는 이혼녀가 많다. 그리고 용띠는 거칠고 뱀띠는 집착이 강하며, 소띠는 열심히 일하고, 개띠는 성격이 좋으나 언어사용이 거칠며, 토끼띠는 무난하다'고 12동물띠 여성의 특성을 밝혔다.

29) 다음은 奈良의 具○○씨 집에 보관된 '연길'서식이다.

㉠ 봉투 1, <渭吉>

綾城後人具○○ / 尊雁甲戌 卯 癸酉中 / 際 / 西紀一九九四年三月二十七日

㉡ 봉투 2, <渭吉送書>

福承華翊하오니 感無量이오이다 / 謹未審茲時에 / 尊體候萬重이 仰慰區區尤至라 / 弟女兒親事는 既承柱單하오니 / 寒門慶事라 渭吉錄呈하오니 / 章製回示하심이 如何오 / 餘不備伏惟 / 尊照謹拜 上狀 / 西紀一九九四年 三月 二十七日 / 綾城後人 具○○ 再拜 / 金頃土宅尊親下執事(는 書式의 行갈이)

30) 일본의 '結納'는 전통적인 약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랑이 결혼 전 신부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대면하는 의식인데, 이때 신랑은 술과 안주를 들고 가 신부의 부모와 共食함으로써 혼인을 인정받으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편무영의 앞의 논문, 165-166쪽 참조.

붉은 고추를 보내기도 하고(張○○, 萩, 51세) 화장품·이불·과자·떡·술안주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2) 대례

① 奠雁禮

신랑이 혼례를 위해 신부집에 오는 '初行'때 신의와 절개의 상징인 나무기러기를 네 귀 보자기에 싸들고 가서 신부집에 바치는 것을 '전안례'라 한다. 재일 한인의 경우 별다른 풍속은 드러나지 않고, 다만 신랑이 신부집 대문 앞에 피워둔 짚불을 건너뛰기도 하고(鄭○○, 萩, 55세, 오락업), 신랑이 기러기 대신 암수 도미를 가지고 왔다는 정도가 보인다(高○○, 54세).

② 결혼식

우리의 전통결혼식은 女歸男家를 표방하는《朱子家禮》의 기록과는 달리 男歸女家였다. 따라서 재일 한인 중 전통결혼식의 경우 대부분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밖에 절·신사·천리교회당과 같은 종교시설이나, 下關에 있는 公會堂, 그리고 披露宴이 혼례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는 일본 혼례의 특성³¹⁾을 고려하여 장소가 넓고 값이 저렴한 중국음식점에서 예식을 치른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낭만적 분위기와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호텔에서 치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신부화장은 1·2세의 경우 주로 형제나 한복집에서 해주었지만 최근에는 미용실이나 웨딩이벤트 회사에서 하며, 예전에는 혼례복이 전통한복 뿐이었지만 요즘은 예복을 갈아입는 일본 혼속³²⁾의 영향으로 적어도 2번 이상은 갈아입는 편이다.

31) 이광규(앞의 책, 177쪽)는 재일 한인의 피로연에 대해 그 절차는 일본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한국식으로, '일본식을 더욱 발전시킨 재일 한국인의 특유한 형식'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32) 원래 일본의 전통결혼식은 神에게 제사지내고 봉사를 다짐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일본신부는 순결무구의 상징으로 흰색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후 예식을 마친 후 보통의 옷으로 갈아입음으로써 '神의 여자'에서 '人間의 여자'로 복귀하게 된다. 이 옷을 갈아입는 의식을 '이로나오시(いろなoshi)'라 한다. 김문학·김명학은 신부를 중심으로 신부집에서의 예식옷(陰式, 흰색)-신랑집에서의 예식옷(陽式, 채색의 옷)-친정집 나들이옷(신랑측의 家紋이 박힌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전통 婚俗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책, 33쪽 참조.

마침 3차 조사지역인 萩에서 2002년 11월에 거행된 조총련계 재일 한인의 결혼식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었다. 지금껏 학계에서 언급된 바가 없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총련에서 파견된 전문사회자가 예식의 시작을 알림. 신랑은 사모 관대 차림으로 신부보다 한 걸음 앞서고 신부는 한 걸음 뒤에 전통한복을 입고 입장. 신랑의 사촌형 내외가 對盤이 되었으며 이어 사회자에 의해 본적·생년월일·주소·학력 등이 포함된 신랑과 신부의 약력소개가 이어짐. 다음은 신랑 신부의 선서로 신랑이 읽고 신부와 함께 서명한 후 예물(반지) 교환을 한 뒤 두 손을 맞잡는 악수가 행해짐. 조총련본부위원장의 주례사가 있는 후 신랑과 신부의 은사가 나와 축사를 하고, 신랑 아버지가 이에 대해 賜辭한 후 祝杯를 제의. 신랑 신부, 하객에 대한 인사 후 퇴장. ㉡ 역시도 정장 예복과 드레스 차림의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등장한 후 친구들이 만든 케이크 절단. 신랑 신부 우인들의 축가와 신부 여형제의 부채춤 축하 공연이 있는 후 신랑 신부 다시 퇴장. 그 사이 조총련 소속 전문가무단(九州전속가무단)의 공연 하에 모든 사람들이 <넬리리야>·<그네 뛰는 처녀>·<날쭙보소>·<와 이리종노> 곡조에 맞춰 춤을 춤. ㉢ 신랑은 양복, 신부는 한복차림으로 다시 등장. 양가 부모 계신 탁자를 비롯하여 하객들이 앉은 각 테이블의 촛대에 불을 붙인 후 신랑 신부 함께 하객을 위해 노래. 신부가 친정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후 각각 상대 부모에게 꽃다발 헌정. 신랑우인들이 신랑을 행가래치고 이후 신랑 신부가 하객에 대한 배웅 인사를 하면서 예식 종결.

이 결혼식은 우리의 전통을 담은 것이라곤 한복 착용과 예물교환, 그리고 흥겨운 여흥잔치 정도에 그칠 뿐, 완전히 일본화되어 가고 있음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³³⁾

③ 幣帛과 初夜

폐백은 피로연이 끝난 후 별도의 작은 방을 마련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양가의 사돈을 비롯하여 형제, 친척들이 소개되면서 相見禮를 행한다. ‘初夜’는 두

33) 신랑의 아버지인 鄭○○(山川○○, 奈良, 55세, 재일 2세, 오락업)가 보여준 영수증에 의하면 예식비용은 첫 등장 때의 전통복 대여비(18만엔)·세 번째 등장 때의 한복대여비(13만엔)·청첩장제작비(2만 5천엔)·1인당 식대비(1만 7천엔) 등 총 1000만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혼인을 하여 처음 잠자리에 드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전통결혼식의 경우 주로 신부집이나 신혼여행지에서 행해진다. 신방에는 신부가 먼저 들어가며,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기는데 족두리-윗도리-아랫도리의 순서로 벗긴다. 신혼여행을 갔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부집에 먼저 들러 하룻밤을 지낸다.

④ 신랑다루기

전통혼례는 초야를 지낸 신랑이 다음날 처가 형제와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모인 가운데 상견례 겸 음식을 대접하는 ‘東床禮’가 베풀어지고 이 자리에서 신랑의 학식과 성격,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신랑 다루기’가 행해진다.³⁴⁾ 재일 한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하거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66.1%에 이르고, 奈良과 萩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 경험이 있었다. 장소는 신랑집과 신부집으로 양분되고 발바닥을 ‘명태’로 때리는 방법은 동일한데 나무나 맥주병으로 때리기도 한다. 때릴 때 ‘첫 입맞춤한 곳이나 첫 손 잡은 곳을 이실직고하라’고 하거나, ‘겨울에 수박을 사오라’고 역지를 부리기도 한다.

(3) 후례

신부가 혼례후 친정을 떠나 처음으로 시댁에 가는 것을 ‘新行’ 또는 ‘于歸’라 한다. 60대 이상의 제1·2세 한인들은 1-3일을 신부집에서 보낸 후 시가로 향하였는데, 친정을 떠날 때 자신이 평소 먹던 그릇을 깨고, 시누이가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밥그릇 속에 엿을 가지고 간다. 시가에 들어서면 부정을 소멸시키는 뜻에서 쪼를 피워 놓고 신부에게 띄어넘게 했다.³⁵⁾ 하지만 최근 신세대들

34) ‘신랑 다루기’는 <晉書, 王羲之傳>에서 보이는 太尉 郗鑑이 東牀(동쪽 구들)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던 王羲之를 사위를 맞이한 데서 유래된 ‘東床禮’의 일종으로, 秋葉隆은 ‘신랑의 인격을 다시 일깨우고 인격의 갱신과 생명의 비약으로 신랑될 자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시련의 축하의례’(신우성 역, 『조선민속지』, 동문선, 1993)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서민사회의 성년의례가 婚俗에 포함된 대표적인 의례가 ‘신랑 다루기’라 할 수 있다.

35) 일본의 경우 시가에 도착한 신부가 행하는 의례로 ①대문 앞에 불을 피워 신부를 건너게 하기, ②술가지에 불을 붙여 그 아래를 빠져 나오게 하기, ③신부의 머리에 삿갓·도롱이·넙비 따위를 씌우기, ④‘이로리(いろり, 圍爐裏)’라 부르는 화롯가를 돌게 하기, ⑤친정에서 가져온 물과 시댁의 물을 섞어 마시게 하기, ⑥아들을 낳을 수 있게 신부의 엉덩이 때리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무영, 앞의 책, 172쪽.

에게는 이런 풍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4) 상례

상례는 망자가 숨이 끊어져서 죽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封墳을 조성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상복을 입는 동안 치르는 각종의례이다. ‘죽는 것을 喪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는 볼 수 없음을 말하는 것’³⁶⁾이라고 班固(23-92)가 정의한 것처럼, 상례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마지막 통과의례이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생존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의례이다. 또 자식들이 효를 표시하는 절호의 기호로 여긴 데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말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풍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의례³⁷⁾라는 점이 특징이다. 원래 《禮書》에는 ‘初終’에서 ‘吉祭’까지 무려 19절차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실제의 관행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1) 訃告와 喪禮의 주관

부고는 예전에는 人便이나 電報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은 대체로 팩스나 전화로 대신한다.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상주를 비롯한 고인의 친인척이지만, 전반적인 일의 처리는 대부분 장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2) 壽衣와 喪服

달리 ‘복옷’이라 불리기도 하는 壽衣는 망자가 사망 전 적당한 때(윤달·환갑)에 미리 장만해 두었던 것을 입히기도 하고, 없을 때는 당일 장만하여 입히거나 제일 좋아하시던 평상복을 입히기도 한다. 喪服은 예전에는 흰색 상복에 지팡이와 두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최근에는 53.8%가 남자는 검정 양복에 삼베 완장, 여자는 검정 한복이나 양장에 삼베머리핀을 꽂는다.

(3) 飯餼와 補空

시신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 장의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襲殮 과정은 잘 아는 이가 없었다. 다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死者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36) 班固, 『白虎通義』, 喪者亡也 人死謂之喪 言其亡不可不得見也.

37) 이광규,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103쪽.

주머니에 넣고, 襲을 한 뒤에 死者의 입에 물건을 물리는 '飯含'³⁸⁾의식과, 入棺 후 棺의 빈 공간을 메우는 '補空'은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다. '반합'에 사용되는 물건은 쌀, 솜, 돈의 순서이고 특별히 쌀과 진주를 함께 넣는 경우도 있다. '보공'은 死者의 의복과 솜이 주된 물건이고, 그밖에 옛날돈과 짚신, 死者의 유물(파이프·안경·신발), 꽃, 가족들의 손톱, 평소에 즐겨 쓰던 장기판도 棺의 빈자리를 메우는 물건들이다. 입관이 끝나면 대체로 승려들이 와서 독경을 한다.

(4) 問喪

입관이 끝나면 문상객을 받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문상을 일명 '通夜(おっ夜)'라고 부른다. 대체로 발인 전날 저녁 6시에서 9시까지가 조문시간이고, 문상자는 검은 예복을 입고 간다. 문상객이 오면 상가에서는 김밥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자의 영혼이 따라 가지 못하도록 소금을 봉투에 넣어서 주며³⁹⁾, 상례가 끝난 후에는 백화점에서 목욕타월과 담요 등을 사서 그것으로 답례를 표한다.

(5) 下棺과 장례후 행사

관이 장의차에서 내려지면 '영정-상주-사위-며느리-일가 친척-일반조문객'의 순서로 運柩행렬이 이어진다. 일본의 葬制에 따라 火葬을 한 뒤 자식과 손자 그리고 친지에 의해 수습된 유골은 觀音寺·普賢寺·大照院와 같은 韓人系 절에 모셨다가 49齋 또는 1년이 지난 뒤 다시 무덤에 묻는다.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돌아올 때는 가던 길과 다르게 와야 한다는 제약이 없고 만약 불단에 위패를 모실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라는 위패를 사용한다. 그리고 사망 후 3개월간은 하루에 3번, 4개월부터 1년까지는 2번, 1년이 지나면 하루에 한 번씩 밥과 국 등을 올린다. 사자의 의복처리는 대체로 태우거나 가족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양분되는데 그 시기 역시 장례식 직후·7일후·49재 후·1년

38) 인도 콜족의 경우 死者의 입에 떡과 은화를 넣어주는 우리의 '飯含의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야 하는 死者의 안전한 여행이나 도차지에서 의 환대를 보장하는 주술·종교적 성격을 띤다. 이에 대해서는 Van Gennep 저·전경수 역,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85, 217-220쪽을 참조.

39) 高○○(54세, 요식업)에 의하면 喪家에 가면 死者의 영혼이 따라온다고 믿기 때문에 아예 問喪者 자신이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은 주머니를 차고 간다고 한다.

후·3년 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IV.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에 반영된 전통의 지속과 변이

인간에게 있어 移住는 자의든 타의든 새로운 생존공간 확보를 위한 탐색활동이다. 이러한 탐색활동에 따른 특정지역의 선택과 그곳에의 정착은 자신이 지녔던 고유의 문화를 고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⁴⁰⁾ 1919년 이후의 단기 노동이민과 2차 대전 후의 강제 징용·징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재일 한인들 역시 분산정책·추방정책·동화정책으로 대표되는 일본정부의 탄압과 회유⁴¹⁾에 맞서 한민족 고유의 전통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동시에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도 끊임없이 모색해 왔는데, 이번 통과의례 현장조사에서도 이는 잘 반영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육례

이번 조사내용 중 '祈子의 종류, 流産·難産의 방지 및 처리, 출산 장소의 준비, 産婆, 금줄, 손톱·발톱·두발의 처리, 産後의 금기, 四柱占을 통한 길흉판, 賣子' 등은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온 '祈子·태몽·胎兒의 성별예측·胎의 처리·産神의 坐定과 致誠·산후금기' 등도 그리

40) 이현홍,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과 이데올로기 지향성」,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김승찬 외),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191쪽.

41) '분산정책'은 民團과 朝總聯의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민족내부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교포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정책이고, '추방정책'은 북한의 僑胞北送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언론들이 인도주의를 내세워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 부추긴 정책이며, '同化정책'은 민족차별을 흑독히 하여 소수민족들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소수민족 통합정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영옥, 「韓民族 共同體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연구보고서93-25』, 민족통일연구원, 1993, 53-54쪽 참조.

보편적으로 전승·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주로 1·2세대들에 한정된 것이었을 뿐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이는 渡日의 동기로서 ‘생계’가 48.9%를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듯 1·2세의 경우 경제적 궁핍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기인한다. 곧 세세한 전통규범에 얽매일 정신적 여유가 없었고, 일본의 산부인과 병원이 발달해 적어도 출산에 관한 한 위험요인이 감소된 데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나마 산모의 授乳量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이나 백일과 돌행사 등은 일본 문화의 개입 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腹帶축하의식’이나 ‘七五三(しちごさん)’과 같은 일본 산육속의 보편적 수용이 두드러진다. ‘복대축하의식’이 胎兒의 생존권에 대한 최초의 지역사회적 승인이라면, ‘七五三(しちごさん)’은 産兒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승인의식으로, 모두 男兒選好의 家系전승의식에 초점을 두는 우리의 산육례와 달리 산아 중심의 지역적 승인의식을 중시하는 일본민중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⁴²⁾ 특히 ‘복대축하의식’의 경우 쉽게 임신하기 위해 임신한 여자의 복대를 배개 밑에 깔아두는 ‘祈子の식’에서부터, 어디로 매느냐에 따른 ‘성별 예측’ 및 ‘安産祈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어 일본 문화에의 동화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성년례

단발령(1898)을 계기로 일찍부터 자취를 감춤으로써 전승의 바탕이 애초에 제거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재일 한인에게 있어 철저히 일본문화에 동화된 대표적인 의례가 성년례이다. 물론 민단과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 한인단체들이 각각 성인식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에게 韓民族임을 인지시키는 수준에 그칠 뿐, 그 이상의 의미부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3) 혼례

42) 한태문, 「한국과 일본의 통과의례 비교연구-釜山廣域市 機張郡과 山口縣 萩市の 産育禮를 중심으로」, 『어문연구』38, 어문연구학회, 2002, 315쪽.

재일 한인에게 있어 혼례는 여러 어려움을 통과한 경사로, 정보교환과 심리적 위안⁴³⁾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醢禮廳의 陳設음식, 신부의 觀親’ 등과 같이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혼의중 탐색, 사성과 궁합, 택일, 혼례식, 초야, 신랑다루기’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고유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의례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 역시 1·2세의 경험에 그칠 뿐 앞서 조총련계 재일 한인의 결혼에서 보듯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단지 한번 한복을 갈아입는 정도 외에 대부분 일본식 결혼식을 닮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2세의 결혼식이 한인 중심의 행사였다면, 3세 이후의 결혼식은 이미 하객의 대상이 일본인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민족적 이질감으로 인한 경계의식을 줄이려는 데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 상례

이광규에 의하면⁴⁴⁾ 일본의 정책과 관련되어 의례 중 가장 일본화하였거나 불교화한 영역이 喪禮이다. 이는 거꾸로 ‘만약 일본의 정책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가장 원형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 전통의례가 상례였을 것’이란 말과 통한다. 그것은 상례가 고국을 떠난 이역만리에서 자신이 아닌 자식을 비롯한 타인에 의해 치러지는 마지막 통과의례인 만큼, 이들은 歸郷의 소망을 안고 살아온 故人의 뜻을 받들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의 사에 의해 대부분의 의식이 치러지긴 하지만 壽衣와 喪服, 반함과 보공, 빈소 설치를 비롯한 장례 후 행사’등에 있어 어느 정도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죽음의 豫兆, 임종과 收屍, 招魂, 襲殮, 상여어루기, 路祭, 下棺, 客死者나 미혼자의 죽음, 채봉의 존재 여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상례 역시 우리의 전통 관습과는 현격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재일 한인들에게 있어 한민족 고유의 통과의례는 부분적으로는 전통

43) 이춘길, 앞의 논문, 48쪽.

44) 이광규, 『在日 韓國人-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일조각, 1983, 179쪽.

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점점 더 일본의 통과 의례 문화 속에 깊이 침윤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재일 한인 통과의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기층문화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사회의 습속과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통적이고 고유한 민중 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통과의례는 인생의 고비에서 거행되는 의례로 기층문화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타민족이나 타 지역에 대해 차별성을 지니는 가장 유용한 표지로 주목된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재일 한인사회의 '통과의례'는 더 이상 일본인 또는 일본사회와 구별되는 '가장 유용한 표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게다가 조국이나 민족을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귀속의식의 박약과, 차별을 모면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과 일본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는 탈민족적 의식현상을 보이고 있는⁴⁵⁾ 오늘날의 재일 한인 젊은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한민족 고유의 통과의례에서 멀어져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朝總聯계 학교교육처럼 민족의식의 강화와 같은 다분히 의도된 인위적 전승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⁴⁶⁾ 왜냐하면 오히려 일본 속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이웃사이에서 전승되던 민단계 재일 한인의 전통의례가 보다 비의도적이

45) 김동훈, 「재일 한인의 거류사에 대한 토론」, 『제1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71쪽.

46) 같은 민족교육이라 하여도 민단과 조총련의 교육방식은 크게 다르다. 민단은 일본에의 동화정책을, 조총련은 철저한 민족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총련계 학교의 경우 <국어>·<조선역사>·<조선지리> 등에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는 민단계 학생들 대부분이 일본학교에 다님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초급학교-중급학교-고급학교를 다니면서 강화된 민족의식은 통과의례와 세시의례 등 우리 민족의 풍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생활 속에 정착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①이춘길, 앞의 논문, 20쪽과 ②이광규, 앞의 책, 199-221을 참조.

고 본질적인 전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속결혼식'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문화를 재현하는 生野민족문화제⁴⁷⁾처럼 재일 한인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본 연구는 세대교체로 인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현시점이 역설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재일 한인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조사기간이 짧아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참여관찰'과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를 심도 있게 펼치지 못한 점과, 허심탄회하게 남한 학자에게 마음을 열어줄 북한 국적의 재일 한인(조총련계)과의 만남이 어려웠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민단계과 조총련계 재일 한인의 통과의례를 비교하거나, 재일 한인 밀집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통과의례를 상호 비교하는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일한인, 통과의례, 정체성, 세대, 산육례, 성년례, 혼례, 상례, 전통문화, 지속, 변이

47) 1997년에 거행된 제15회 生野민족문화제 프로그램을 보면 길놀이 형태의 지역 농악 퍼레이드를 시발로 제1마당엔 '농악 대풍물·고성오광대·씨름·널뛰기'가, 제2마당엔 '마당극', 그리고 제3마당엔 '민속결혼식·무용·노래자랑·농악·강강술래' 등이 빼풀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 Van Gennep 저·전경수 역,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85.
- 강 철,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 雄山閣, 1987.
-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 동포』, 서울대출판부, 1999.
- 강재언·김동훈 저, 하우봉·홍성덕 역,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 吉岡増雄, 『在日朝鮮人と住民權運動』, 社會評論社, 1981.
- 김명수, 『1993년 재일 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재일한국청년회, 1993.
- 김문학·김명학 편저, 『일본문화의 수수께끼』, 우석, 1998.
- 김승찬 외,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 김양기, 『일본 한국인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제1회 세계한민족 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김용덕, 『일생의례』,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 김재일, 『우리 민속 아흔아홉마당』, 한림미디어, 1997.
-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92.
- 백영옥, 『“한민족 공동체”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 『연구보고서93-25』,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법무부,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 법무자료 제62집, 법무부, 1985.
- 이광규, 『재일 한국인-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일조각, 1983.
- 이광규,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 이구홍, 『오늘의 재일 한국인 사회』, 인문출판사, 1974.
-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일본』, 통일원, 1996.
- 이춘길, 『재일동포의 문화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1997.
- 이현홍,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과 이데올로기 지향성』,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 (김승찬 외),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 장철수, 『인간을 위한 의례의 의미』,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中(최인학 외), 민속원, 1998.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 출판부, 1996.

倉石あつ子 외, 『人生儀禮事典』, 小學館, 2000.

카트린 롤레, 마리 프랑스 모렐 저·나은주 역, 『출산과 육아의 풍속사』, 사람과 사람, 2002.

편무영, 『일본인의 인생의례』, 『일본민속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7.

한태문, 「〈해행총재〉소재 사행록에 반영된 일본의 통과의례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학회, 2000.

한태문, 「한국과 일본의 통과의례 비교 연구-부산광역시 기장군과 山口縣 萩市の 산육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8집, 어문연구학회, 2002.

황성규·한태호 편, 『일본·일본인론』, 교학연구사,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Rites of Passag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an, Tai-Moon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said to be the Korean race's hard heritage after the Japanese Imperialists' rule and colonial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es on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concentrated on their existence related realities so far, and did not examine deeply the rites of passage of life culture, such as the rites of yielding and rearing a baby, the coming-of-age ceremony, the marriage ceremony and the funeral rites, etc. In this paper, the author conducted an on-the-spot survey of three places in Japan, i.e., Ikaino at Osaka, Nara and Hagi at Yamaguchi Prefecture, etc, and examined how much Korean residents in Japan accepted the inherent rites of passage of the Korean race, how to adapt them to the Japanese society and what the actual situation of continuance and changes of the tradition was.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Korean race's inherent rites of passage partially kept Korean tradition at the anniversary of the one hundredth day after birth and the first birthday, but most of them were much integrated gradually with the culture of the rites of passage of the Japanese people. Therefore, the author found that 'the rites of passage' at the socie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ould not be 'the most useful mark' distinguishing them from the Japanese people and the Japanese society. However, it is fortunate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made efforts a little to expand sympathy and understanding on Korean traditional folk culture like the Ikaino Korean Race Culture Festival reproducing various kinds of

Korean folk culture. Based on this paper, another study can be made in the future to compare the rites of passage of both group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e.,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and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o compare the rites of both areas, i.e., the areas crowded with Korean residents and remaining areas.

Key wo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rites of passage, identity, generation, the rites of yielding and rearing a baby, the coming-of-age ceremony, the marriage ceremony, the funeral rites, traditional culture, continuance, changes